시리즈

새로운 조경수 56

-복자기-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복자기의 초기 단풍(10월초순경)

복자기는 단풍나무과(Aceraceae)의 단풍나무속(Acer)에 속하는 나무로 우리나라 전지역의 심산(深山)중에 표고 100~1,300m에 자생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만주(滿洲)에도 분포하고 있다. 주로 음지에서 잘 자라며 갈참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등 활엽수와 혼생하고 생장이 느린 편이며 꽃은 잡성화(雜性花)로 같은 나무에서 양성화(兩性化)도 피고 단성화(單性花)도 핀다. 복자기 중에 잎이 두껍고 표면에 유두상(乳頭狀)의 털이 있는 것을 젖털복자기(Acer triflorum KOM. for. Subcoriacea KOM.)라고 하고 복자기에 비하여 잎이 세장(細長)하고 뒷면 맥상(脈上)에만 털이 있는 것을 복장나무(Acer mandshuricum MAXIM)라고 한다.

내음력(耐陰力), 내한력(耐寒力)이 강하고 내습력(耐濕力), 내염력(耐鹽力), 내공해력(耐公害力)은 보통이다. 생육적지는 토양수분이 중용인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복자기는 단풍나무중에 단풍이 가장 붉고 아름다우며 불타는 듯한 붉은 단풍숲속으로 들어서면 황홀(恍惚)과 환희(歡喜)의 경지에 빠지게 한다. 복자기는 우리 나라 단풍의 대표수종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조경수로서 활용성이 부진한 것은 우리 나라 산림의 가을 경관은 자연상태 그대로 두어도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으로 뒤덮혀 문자 그대로 금수강산(錦繡江山)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구태여 인공적으로 증식하여 식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현재는 도로, 철로, 아파트, 공원등의 확대조성으로 새로운 조

경수의 수요가 요구되고 있어 지극히 한국적인 복자기의 생산보급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복자기는 생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로수등 도시경관수로 보급할려면 지하고(枝下高) 2m이상 되고 가능한 수간(樹幹)이 통직하게 길러야 하므로 많은 노력과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묘목 때부터 비배관리, 전지, 전정을 철저히 하여 초기 생장을 촉진하고 수형(樹形)을 제때 제때 잡아 주어야 한다.

1. 복자기 단풍의 절정(10월중순)
2. 복자기의 열매와 잎
3. 복장나무의 열매와 잎
4. 복자기의 화서와 꽃

〈표 1〉복자기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オニメグスリ	Triflorum Maple.
젖털복자기	Acer triflorum KOM. for. Subcoriacea KOM.	アシバメグスリ	-
복장나무	Acer mandshuricum MAXIM.	マンツウカエテ	Manchurian Maple.

〈표 2〉 수종별 특성

종 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복자기	·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15m정도 자람. · 수피는 회색이고 가지는 붉은빛이 돌고 피목(皮目)이 있음. · 동아(冬芽)는 흑색이고 난형임. · 잎은 대생하여 한 개의 잎자루에 3개의 소엽이 달림. · 잎은 피침형 또는 타원형이고 끝부분 가까이에 2~4개의 톱니가 있으며 예두, 원저. · 소엽의 길이 7~8cm, 나비는 5cm 고 잎자루의 길이 5cm로 털이 있음. · 잎표면에 털이 드문드문 있고 뒷면 엽맥위에 강모(剛毛)가 있으며 잎가장자리에도 털이 있음 · 가을에 단풍이 붉음	· 꽃은 5월에 황색으로 핌 · 자웅2가화(雌雄家花)이나 때로는 잡성화(雜性花)가 피는 경우도 있음. · 화서는 산방화서(繖房花序)로 한 개의 화서에 3개의 꽃이 달리고 화경(花梗)에 갈색털이 있음. · 열매는 시과(翅果)로 9~10월에 익으며 길이 5cm, 지름 1.5cm로 날개가 나란히 벌어짐. · 시과의 날개는 회백색이고 강모가 밀생하며 나무처럼 딱딱함.	· 전국산야 표고 100~1,300m에 생육 · 만주에도 분포	토양수분이 중용이고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
보장나무	· 낙엽활엽소교목 수고 10m 정도 자람. · 동아(冬芽)가 뾰족함. · 잎은 타원형피침형, 점첨두, 예저임. · 잎의 길이 5~10cm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음. · 엽병에 붉은 빛이 돌고 털이 없음. · 복자기보다 잎이 세장하고 표면에는 털이 없으며 뒷면 엽맥상에 미모가 있음	· 꽃은 5월에 담황색으로 핌. · 자웅2가화(雌雄二家花)이나 때로는 잡성화(雜性花)가 피기도 함. · 화서는 취산화서(聚散花序)로 한 개의 화서에 3~5개의 꽃이 달림. · 열매는 시과로 9~10월에 익고 털이 없음. · 열매의 길이는 2~2.5cm임.	· 중부이북지방의 산야에 생육하며 남부고산지대에도 자란다.	〃

[redacted]

파종, 삽목, 접목, 취목등의 방법으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삽목, 접목, 취목등의 번식법은 활착율이 낮아서 실용성이 없어 주로 종자의 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법으로 번식하여야 한다.

실생묘양성용 종자는 9~10월에 종자가 익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종자를 채취하여 종자가 건조하기 전에 젖은 모래와 섞어서 2년간 저온저장을 하던가 노천매장을 하여두었다. 4월에 파내서 ㎡당 1 l 정도 산파(散播)를 하고 그 위에 5~10mm 정도 두께로 복토를 하고 건조방지를 위하여 그 위에 볏짚을 깔아 준다. 파종 후 1개월 정도면 발아하고 ㎡당 발아본수는 100~150본 정도가 됨

※종자가 너무 익든지 건조하면 발아가 불량하고 또 휴민성 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간 저온저장 또는 노천매장을 하여야 발아가 잘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종자품질=1 l 당 종자 입수는 520립, 1kg당 입수는 3,800립, 순양율 97.5%, 발아율 42.6%, 효율 41.5%, 포장 발아율 20~30%. 조경수